

전남도, 전국 첫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청사진

5개년 계획 수립...100개소 육성·연매출 1천억 창출 등 목표 2026년까지 2천432억 사업비 투입 4개 분야 52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환경·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과 유기농 생태체험마을을 활용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목표는 2026년까지 ▲현재 34개인 유기농생태마을을 100개소로 육성 ▲유기농 융복합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유기농생태마을을 100개소까지 늘려 도내 총 연매출 1천억 원 달성 ▲농업·농촌 서포터즈 1만 명 육성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6년까지 2천4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분야 총 52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친환경·저탄소 생태마을 100개소 육성 1천11억 원 ▲유기농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 942억 원 ▲전남형 유기농 생태마을 어울림 협력체계 활성화 73억 원 ▲농업·농촌 가치 확대 405억 원 등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이끌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마을 주민이 자체 발굴한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유기농산물 생산,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기농 레스토랑, 자연치유, 생태교육, 민박, 도농 교류 등을 통해 잘 사는 농업·농촌 모델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유기농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도내 유기농 생태마을의 연매출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유기농업과 생태마을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모델 발굴을 비롯해 납도장터 입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TV 홈쇼핑 지원 등 다각적 판매망 구축 및 안정적 판로처 확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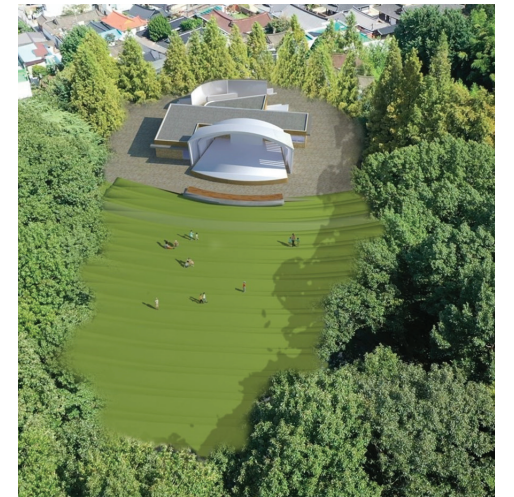
전남형 유기농 생태마을 어울림 플랫폼 구축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 단위 유기농 생태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시설물 공동지원,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통합브랜드 개발·육성, 시장 공동대응 등 협력 체계 구축을

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업·농촌 가치 확대를 위해 매년 마을당 각 100명의 외부인과 자매결연해 2026년까지 농업·농촌 서포터즈 1만여 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보전, 체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유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경제구조 정립을 위해 절실하다"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판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곳으로 만들어 거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 조감도

광주 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 내년 완공

700석 규모 친환경 다목적 시설로

광주시가 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 설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8일 "4월 중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직공원의 과거 수영장 부지 지형과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 객석을 친환경적 잔디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관람객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 사직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무대 555㎡, 객석 700석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4월 설계공모 후 6월 말 설계 당선작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공연장 내부는 공연무대 200㎡, 부속공간 235㎡ 등 구성되며, 객석은 기존 스탠드 관람석 450석, 잔디광장 250석 등 모두 700석 규모다.

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이 조성되면 양림동 등 기존 지역을 활성화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시민들에게는 음악축제 개최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소로 제공하는 등 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독창적인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림동 톱기타 거리 인근에 13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행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는 물론 톱기타 거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연장 진출입 편의를 위해 기존 진출입로 2곳을 정비하고, 1곳은 신설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이 조성되면 남구 양림동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장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드론 활용 산악지역 송전철탑 합동점검 시행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순천정암대학교의 드론학과와 합동으로 송전철탑을 드론을 이용하여 점검하였다.

송전철탑은 한전변전소에서 철도변전소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공전선로로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철도에서는 송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직접 송전선로가 위치한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점검하였으나, 2018년부터 접근이 어렵고 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송전철탑 및 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송전선로 점검용 드론은 짐이동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와 설비 내부의 이상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탑재되어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순천정암대학교의 드론 정비 기술과 우수한 드론 조종법도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을 함께 시행하였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하여 배운 조종법을 활용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급전되고 있는 전차선로의 주요설비 등을 드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남구, 계절별 유행 감염병 알람 서비스

광주 남구는 계절별 유행 질병을 안내하는 알람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감염병 2-4급에 해당하는 질병 정보와 예방 수칙을 보건소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구청 소식지, 누리집 등을 통해 전달한다. 남구는 봄부터 겨울까지 질병의 유행 시기에 맞춰 감염병 16가지에 대한 증상과 전파 경로 등을 안내한다.

봄철의 경우에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족구병이 대표적이며, 여름에는 콜레라

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이다. 또 가을에는 신증후군 출혈열을 비롯해 렙토스피라, 쯤쯤가무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며, 겨울에는 인플루엔자와 수막구균성 수막염, 로타 바이러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질병 정보 수집을 위해 병·의원 71곳과 학교 9곳, 사회복지시설 2곳, 산후조리원 1곳 등 총 111곳을 질병 정보 모니터 기관으로 지정해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한전KDN, 3년 연속 무벌점 '우수공시기관' 선정

한전KDN이 3년 연속 무벌점 우수공시기관 선정을 달성했다.

한전KDN은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2021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19년, 2020년에 이은 3번째로 경영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지난 2007년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알리오 등의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요경영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최근 이뤄진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은 기재부가 348개 의무 공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과 노무항목, 재무항목 등

총 23개 항목을 점검했다.

한전KDN은 공시내용 증빙자료를 토대로 3차례 진행된 서면점검 실시 결과 무벌점 공시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향후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국민소통', '혁신노력·성과지표'에 평가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2017년 공기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투명 경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실 공시 부분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itie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능력제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0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보험료부담	240,833원	125,531원	78,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국회연락처 12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